

10年内 科學技術 先進國 水準으로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10년안에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를 「기술개발의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주택·보건·의료·교통 등 복지기술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과기처는 특히 유럽공동체(EC), 미국, 일본 등과 국제협동연구체제를 강화해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는 동시에 東西화해분위기에 맞추어 소련, 중국, 헝가리, 폴란드, 유고 등 북방국가와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 개발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90~'96년)을 수립, 정부 2조 8,700억원, 민간 6조 6,700억원 등 모두 9조 7,400억원을 들여 정보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정밀화학, 생명공학, 항공우주, 원자력 등 7대 중점분야 60개 국책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선진과학기술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각부처 공동협력기구인 가칭 「기술개발사업단」을 설치·운용한다.

원자력분야에서는 '93년도에 대덕지역에 원자력지역난방을 실현하고, '90년대 말까지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한다.

기초과학

'90년대중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한다. 올해 395억원을 투입, 전국 이공계대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30개의 우수연구집단을 선정, 이를 집중 지원한다.

문교부 및 대학 등과 협조해 기초과학연구종합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복지기술

올해를 복지기술개발의 원년으로 삼는다. 연구개발비는 413억원이다.

팔당댐, 소양댐 등 주요 상수원의 오염정화기술을 개발하고, 난치병 치료기술 확립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건설부와 공동으로 주택건설비 20%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민주택 200만채 건설을 촉진하며, 교통부와 도심차량의 평균속도를 20% 증가시킬 자동신호처리시스템을 공동개발한다.

연구지원체제

국제공동연구와 인력양성, 범부처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강화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보스턴루트 128 등 해외 첨단연구단지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업체의 현지법인 등을 진출토록 유도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 주재중인 12,000여명의 한국인 과학자를 대거 국내연구활동에 활용하고, 2,000명은 오는 2000년까지 국내유치한다.

또 소련, 헝가리 등과도 과학장관회담을 추진하며,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한 과학기술장관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학술대회에 북한의 학자들을 초청한다.